

『增補內經拾遺方論』에 대한 文獻 研究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安宰永 · 趙學俊^{1*}

The Study of the Literature on the Book of *Neijingshiyifanglun with additions and emendations*

Ahn, Jae-young · Jo, Hak-jun^{1*}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 : *Neijingshiyifanglun with additions and emendations* was written by Liu Yude, a doctor who lived during Ming period. I researched the origin of the book, and analyzed the features of it as well. I also approximated his birth date and death date. In doing this, I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the practice of medicine in ancient China.

Method : I researched the book by comparing its contents, including the causes of diseases, the descriptions of symptoms, the transmissions of diseases, and treatments, with other sources that he had referenced.

Result : In understanding *Hwangdineijing*, Liu Yude was influenced by many medical scholars such as, Wang Bing, Ma Shi, and Wu Kun, but his opinion is most similar to that of Zhang Jiebin. In the field of the Chinese Medical Theory, he was deeply influenced by 'JinYuan-Sidajia's theories, particularly Li Gao and Zhu Zhenheng. In fanglun, he was greatly influenced by *Yifangkao*. He concluded that 'aggregation-accumulation' was a disease of stuffiness, and suggested its cure in through 'yangjingzezichu' and 'treatment of blood aspect'. He recognized the disease of 'reversal of qi' as the disease of 'jiaoqi'. He also indicated that the word of 'qi' is not 'rough' but 'tears' or 'yingfengliulei'.

Conclusion : 1. He was an excellent medical practitioner and scholar in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2. He found and corrected errors in the opinions of Wang Bing, Ma Shi, and Wu Kun. 3. He frequently practiced *Taipinghuiminhejijufang*, and considered Spleen-Stomach, yin-blood, and fire-heat important. 4. He captured the spirit of *Huangdisuwenxuanminglunfang*, *Neijingshiyifanglun*, *Yifangkao* in views of remedy and theory. 5. *Neijingshiyifanglun with additions and emendations* is the most comprehensive book about fanglun because of its thorough analysis of the *Hwangdineijing* and its connection to the treatment of ancient diseases in Oriental Medical History.

Key Words : *Neijingshiyifanglun with additions and emendations*, Liu Yude, fanglun

* 본 연구는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학위논문 중 『增補內經拾遺方論』의 해석 부분을 제외하여 발췌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117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43-649-1347. Fax : 0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접수일(2012년 1월 25일), 수정일(1차 : 2012년 2월 9일, 2차 : 2012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2012년 2월 14일)

I. 緒 論

『內經』에 대한 歷代의 註釋은 대체로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全面的인 註釋과 校正을 加한 것, 둘째 『內經』을 分類하여 새로이 編纂한 것, 셋째 『內經』의 특정 주제에 의하여 註釋한 것이다. 그 중 본 研究에서 다루려는 『增補內經拾遺方論』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書籍이다.

『內經』에 記載된 疾病에 病因, 症候만 있고, 方劑, 治法은 缺如되어 있기에 駱龍吉이 그 중 62種의 病症을 골라 註解를 加하고 處方을 定하여 『內經拾遺方論』을 編撰하였다. 그 後 明代의 劉浴德, 朱鍊이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에 다시 88種의 病을 續補하여 『增補內經拾遺方論』이라 改名하였는데, 그 文體는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과 비슷하다.

현재 傳해져 오는 『增補內經拾遺方論』은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을 第1卷, 第2卷으로 묶고, 劉浴德, 朱鍊이 續補한 部分을 별도로 第3卷, 第4卷으로 만들어 총 4卷으로 合編되어 있다.

그 版本은 清代 乾隆41년에 간행된 武林大成齊 刻本과 1957년에 上海衛生出版社의 印刷本이 현재까지 傳해져 온다.

『內經拾遺方論』은 『內經』의 病證을 研究함에 있어서 古代의 病證의 要所를 把握하는 데 重要的 價値가 있다¹⁾고 認定되고 있으며, 劉河間의 『宣明方論』, 清代 羅美的 『古今名醫方論』과 함께 『三朝名醫方論』 이라는 名稱으로 묶여서 읽힐 정도로²⁾ 方論을 研究 하는 重要的 書籍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이 비록 이처럼 重要的 價値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筆者의 碩士論文³⁾을 제외하고 古代의 病證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풍부하지 않으며, 方論에 대해서도 蔡仁植⁴⁾, 柳호균⁵⁾, 金成煥⁶⁾, 銀哲珉⁷⁾과

筆者의 論文 등을 제외하고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研究들이 疾病 혹은 方論 중 한 곳에 주로 偏向되어 있고, 두 분야를 연결하여 다른 研究는 현재 드물다. 또한 『內經』의 病證은 疾病을 연구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점에서 『內經』의 病證과 그에 대한 處方을 다른 研究가 필요하다. 이에 『增補內經拾遺方論』은 그 研究에 있어 적합한 書籍이며, 아울러 『增補內經拾遺方論』의 著者 劉浴德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增補內經拾遺方論』 4卷 中 筆者의 論文 (駱龍吉이 著述한 第1卷, 第2卷)에서 다른 내용을 제외한 것(明代 劉浴德, 朱鍊이 增補한 第3卷, 第4卷)을 바탕으로 劉浴德 先生의 生涯와 學術思想을 도출하고, 古代의 病證과 處方의 연결을 통해 病因·病機 및 方論을 파악하여 얻은 약간의 知見을 알리고자 한다.

II. 本 論

1. 劉浴德의 生涯와 著書 및 學術思想

1) 生涯와 著書

『增補內經拾遺方論』의 著者 劉浴德 先生의 生涯와 活動은 현재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增補內經拾遺方論』의 序文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序文은 陸序, 朱序, 自序로 되어 있는데, 自序에 의하면 宋代 駱龍吉 先生이 지은 『內經拾遺方論』 8卷 62篇에 88篇을 增補하여 도합 150篇의 『增補內經拾遺方論』 2集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自序를

1) 洪元植, 尹暢烈 編著. 新編中國醫學史. 대전. 주민문화사. 2004. p.92.

2) 宋駱龍吉 撰, 金劉完素 撰, 清羅美 編, 郝恩恩 主編. 三朝名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3)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4) 清·汪昂 著, 蔡仁植, 孟華燮 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2.

5) 柳호균. 汪昂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6)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處方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處方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3).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補氣血安神 處方 8首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李南九,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處方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7) 殷哲珉. 『經方實驗錄』의 方論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4). pp.1-12.

지는 時期는 萬曆 己亥 늦은 봄 보름이라고 되어 있다⁸⁾. 萬曆은 中國 明나라 神宗 때의 年號이며 西紀 1573년부터 1619년까지이므로 계산해보면 萬曆 己亥는 1599년이다. 보통 책의 著作이 著者의 中年에서 末年 사이에 이루어지고 序文은 대개 마지막에 지어지므로 그로부터 유추해보면 劉浴德 先生은 대략 1500年代 중반부터 1600年代 초반까지 活動한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序文(陸序)에 淮陰 肖齊 劉公이라는 구절이 있는데⁹⁾, 淮陰은 劉浴德 先生이 살던 地域이고 지금의 江蘇省 淮陰이며 肖齊는 劉浴德 先生의 號이다. 또한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壺隱子라는 號가 보이는데 역시 劉浴德 先生의 號이다. 한편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明 太醫 淮陰肖齊劉浴德’과 ‘聖濟殿御醫 門人起前蔣弘業’이라는¹⁰⁾ 구절이 보이는데 아마도 劉浴德 先生은 太醫院¹¹⁾에서 太醫(醫師 혹은 醫官)를 지낸 것으로 추측되며 그의 門人이 御醫 蔣弘業으로 보인다. 現在 『增補內經拾遺方論』이 傳해지고 있으며, 傳해지지 않은 著書로 『壺隱子應手錄』, 『壺隱子醫譚一得』, 『脈訣正偽』, 『脈賦訓解』 등이 있다¹²⁾. 한편 『增補內經拾遺方論』 丁第七十九 主身生丁瘡 神仙太乙膏의 내용 중에 ‘壺隱子曰 愚家世用之 貼回瘡錠子之上’이라는¹³⁾ 구절과 凡例의 내용

중에 ‘又有標家傳方者 乃家傳所製 日用之方也 如先大夫竹東公解毒膏茶湯 先君子春齊翁 清中啟脾湯之類是也’¹⁴⁾의 구절을 살펴보면 劉浴德 先生 집안은 대대로 醫師 집안임을 알 수 있다.

以上の 내용을 정리해보면, 劉浴德 先生은 號는 肖齊이고 別號는 壺隱子이며 淮陰(지금의 江蘇省 淮陰)人이다. 대대로 醫師 집안이고 太醫院에서 太醫로 지냈으며 明 神宗 萬曆間(16世紀 중반부터 17世紀 초반)에 살았다. 著書로는 『增補內經拾遺方論』, 『壺隱子應手錄』, 『壺隱子醫譚一得』, 『脈訣正偽』, 『脈賦訓解』 등이 있고, 現在 『增補內經拾遺方論』만이 傳해지고 있다.

2) 學術思想

① 『素問』과 『靈樞』의 病證에 대한 注釋

『增補內經拾遺方論』은 『素問』과 『靈樞』의 病證에 대한 전문적인 注釋書이다. 『增補內經拾遺方論』은 駱龍吉 先生이 注釋한 62개 病證과 劉浴德 先生이 增補하여 注釋한 88개의 病證을 합하여 總 150개의 病證으로 구성되어 있다.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언급된 人物들 중에서 注釋家에 해당되는 人物들은 王冰(王太僕, 啓玄子), 滑壽(樓寧生, 涓伯人), 馬蒔(馬玄臺), 吳崑(參黃子)이며, 王冰은 傷寒第五 主夏月傷寒, 寒熱第九 主露主風, 心風第二十 主風中心藏, 五實第四十七 主五藏俱實, 五虛第四十八 主五藏俱虛 등에 나타나고¹⁵⁾, 滑壽는 癘風第十一 主風傷榮衛, 肝風第十九 主風中肝藏, 伏梁第三十五 主心積 등에 나타나고¹⁶⁾, 馬蒔(馬玄臺)는 洞第十五 主迴風, 厥逆第五十六 主寒, 泣第六十五 主迎風流淚 등에 나타나고¹⁷⁾, 吳崑은 石水第二十七 主水腫, 痞氣第三十六 主脾積, 霍亂第四十一 主氣亂腸胃 등에 나타난다¹⁸⁾. 諸家들과

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4.

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0.

1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39.

11) 太醫院: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34. “明代에 代表的인 醫療機關이며 醫療를 管掌함에 있어, 모두 13科로 나누어 醫官, 醫生, 醫師들이 科別로 醫術을 익혔으니, 曰大方脈, 曰小方脈, 曰婦人, 曰瘡瘍, 曰鍼灸, 曰眼, 曰口齒, 曰接骨, 曰傷寒, 曰咽喉, 曰金鐵, 曰按摩, 曰祝由이다. 여기서 醫家의 子弟들이 스승을 選擇하여 공부를 했고, 三年, 五年마다 一試, 二試, 三試를 보아 黜陟시켰다. 太醫院의 醫業은 13科로 나뉘어져 御醫에서 醫師, 醫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一科를 專攻하였다. 隆慶五年(1571)에 御醫, 吏目을 모두 20員으로 奏定했는데, 이중 大方脈五員, 傷寒科四員, 小方脈 婦人科二人, 口齒, 咽喉, 外科, 整骨, 痘疹, 眼科, 鍼灸等 七科 各一員이었고 醫師, 醫生이 각 70여명이었다.”

12) 『增補內經拾遺方論』 曹炳章 編. 影印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의 後記

13)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75.

1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28-129.

1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60, p.170, p.218, p.295, p.297.

1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83, p.216, p.284.

1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3, p.316, p.330.

1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34, p.249, p.259.

劉浴德의 견해는 대부분 같았으며, 『素問』은 王冰, 吳崑, 馬蒔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靈樞』는 馬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단지 영향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틀린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 洞第十五, 厥逆第五十六, 泣第六十五, 癲狂第七十六에서 馬蒔의 注釋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劉浴德과 同時代에 활동한 內經研究家인 景岳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견해가 같다.

② 金元四大家의 영향

『增補內經拾遺方論』의 곳곳에서 金元四大家의 흔적이 나타난다. 劉河間은 傷寒第五 雙解散, 傷暑第六 六一散, 痞氣第三十六, 五實第四十七 防風通聖散에서 보이고, 대부분 火熱病에 관련되어 있다. 張子和는 五實第四十七 防風通聖散, 五虛第四十八 破證奪命散, 痿第四十九, 痺第五十, 厥第五十四, 癲疾第八十三 硃砂滾涎丸에서 보이고, 五實五虛, 痺證, 精神病과 관련되어 있다. 李東垣은 洞泄第一 調中益氣湯, 升陽除濕湯, 痿瘡第二 枳實導滯丸, 傷暑第六 清暑益氣湯, 寒熱第十 小續命湯, 偏枯第十七 疎風湯, 肥氣第三十四, 伏梁第三十五, 痞氣第三十六, 息賁第三十七, 奔豚第三十八, 痿第四十九 清燥湯, 厥第五十四 當歸拈痛湯, 泣第六十五 連翹飲子, 頭痛第六十七 清震湯, 肩背痛第六十八 通氣防風湯, 羌活勝濕湯, 四支熱第七十四 火鬱湯, 升麻散火湯, 體惰第七十五 補中益氣湯, 調中益氣湯에서 보이고, 대부분 脾胃(氣虛, 濕痰)에 관련된 病이다. 특히 다른 篇에서도 脾胃를 중요시한 부분이 많은데 그 예로 目不明第六十三 助陽和血補氣湯, 痔第八十 通腸痔漏丸, 癰疽第八十一 仙方活命飲, 癭第八十八 天麻散 등 여러 곳에서 脾胃(氣虛, 濕痰)를重視하는 處方들이 보인다. 아마도 脾胃가 後天의 根源이므로 매우重視된 것으로 생각한다. 朱丹溪는 積聚第三十三, 隔第四十三 滋陰潤燥湯, 痿第四十九, 痺第七十一 龜鹿二仙膠, 種子論 達生散에서 보이고, 주로 陰血(肝腎相火)에 관련된 病과 産科이다. 따라서 劉浴德은 脾胃(氣虛, 濕痰)를 가장重視하였고, 陰血(肝腎相火) 및 火熱病도 역시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中風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는 中風을 六經中風과 五臟中風으로 구분하여 다스리고 있다. 寒熱第十 主風藏이 바로 六經中風에 해당되고¹⁹⁾ 肝風第十九, 心風第二十, 脾風第二十一, 肺風第二十二, 腎風第二十三이 五臟中風에 해당된다²⁰⁾. 모두 外風으로 傷寒의 범주이지만 正虛가 같이 동반된 病證으로 치료에 있어서 正傷寒의 發汗法을 사용하지 않고 補瀉法을 사용한다.

六經中風의 治法을 살펴보면, 太陽經 中風은 無汗惡寒에 麻黃續命湯과 至陰穴 刺絡 및 崑崙穴 刺鍼이고, 有汗惡風에 桂枝續命湯과 風府穴 刺鍼이다. 陽明經 中風은 身熱無汗不惡寒에 白虎續命湯이고, 身熱有汗不惡風에 葛根續命湯과 厲兌穴 刺絡과 陷谷穴 刺鍼이다. 太陰經 中風은 無汗身冷에 附子續命湯과 隱白穴 刺鍼이고 有汗無熱에 桂附續命湯과 太溪穴 刺鍼이다. 少陽經과 厥陰經 中風은 羌活連翹續命湯과 大敦穴 刺鍼 및 絕骨穴 灸이다.

五臟中風의 治法을 살펴보면, 肝風은 肝心病이므로 射肝湯²¹⁾으로 祛風하면서 瀉火熱과 補肝心해야 한다. 心風은 心脾病이므로 遠志湯²²⁾으로 祛風하면서 補心脾와 安心을 해야 한다. 脾風은 脾病이므로 白朮湯²³⁾으로 祛風寒하면서 補脾祛風濕해야 한다.

1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77-178. “風論曰 風氣藏於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風者 善行而數變 腠理開則洒然寒 閉則熱而悶 其寒也則衰飲食 其熱也則消肌肉 故 使人快慄而不能食 名曰寒熱”

2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16-224. “風論曰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噎乾 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 善怒 噎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肢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皴然白 時欬 短氣 晝日則 差暮則甚 診在眉上 其色白 腎風之狀 多汗惡風 而彫然浮腫 脊痛不能正立 其色始然 隱曲不利 診在肌上 其色黑”

21)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17. “治肝藏中風 多汗惡風 善悲噎乾 善怒 時憎女子 射干 白芍 十字 薏苡仁 三錢 桂心 半錢 石膏 牡蠣 二錢 右 作一服 水二鍾 煎八分 不拘時服”

22)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18-219. “治心藏中風 多汗惡風 善怒 口不能言 遠志 十字 人參 羌活 細辛 麻黃 去節 赤芍 白朮 石菖蒲 各一兩 右 爲細末 每服二錢 煎小麥湯調下 無時日三服”

肺風은 肺病이므로 五味子湯²⁴⁾으로 祛風寒하면서 補肺하여 衛氣와 營血을 조화롭게 하고 肺의 肅降之氣를 도와야 한다. 腎風은 肝腎病이며 특히 陽虛가 동반되므로 葶藶飲²⁵⁾으로 祛風濕하면서 強筋骨하고 補腎陽해야 한다.

한편 類中風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胸仆第十六, 偏枯第十七, 辨病第十八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에 意識의 변화가 없는 것은 偏枯이며²⁶⁾ 胸仆와 辨病은 意識의 변화가 있다. 이는 外部의 風邪가 아닌 內部의 風邪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氣滯, 血虛, 濕痰이 기본 원인이다. 胸仆는 血虛와 痰이 원인이므로 六合湯, 天麻半夏湯을 사용하고 偏枯는 風邪와 筋骨虛弱이 원인이므로 疎風湯과 虎脛骨酒를 사용하고, 辨病은 風邪와 氣滯, 濕熱痰, 寒濕痰이 원인이므로 稀薺丸, 紫葳一粒丹으로 祛風하고 救急稀涎散으로 祛風痰하고 荊瀝湯, 竹瀝湯, 秘傳豁痰湯으로 祛風熱痰하고 滌痰湯, 青州白丸子로 祛風寒濕痰한다. 虛證이 동반되면 大秦芫湯, 中國公萬病無憂藥酒方으로 다스리고 內服할 수 없는 경우에 黃芪防風湯을 薰蒸하여 皮膚로 스며들게 한다.

④ 積聚(痞證)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積聚에 대한 處方으로 積病에 五積丸과 聚病에 散取湯이 제시되었다. 劉浴德은 腸胃가 弱할 때 飲食의 寒溫의 不調로 邪氣가 머물러 五臟六腑에 積聚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醫方考』에서 吳崑은 積에 관련된 處方을 제시하지 않고 聚에

대한 處方으로 散聚湯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五積丸(肥氣丸, 伏梁丸, 痞氣丸, 息賁丸, 奔豚丸)이 『脾胃論』에 없다고 하여²⁷⁾, 吳崑은 五積丸이 李東垣의 處方이 아니라 여러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劉浴德은 『丹溪手鏡』 卷之下 第六 積聚의 五積丸²⁸⁾을 參考하여 白茯苓을 白朮로 變形하여 만든 五積丸을 제시하였다. 이는 積聚의 치료에 있어 『醫方考』를 參考하면서 『醫方考』에 빠진 積에 대한 處方을 朱丹溪의 五積丸을 變形한 것으로 代置한 것이다. 또한 劉浴德은 積聚의 病은 痞證의 범주로 파악하여 이에 張潔古의 ‘養正則自除’와 李東垣의 ‘治血分’의 原則에 따라 積聚를 다스렸다²⁹⁾.

⑤ 厥(熱厥, 寒厥)

『增補內經拾遺方論』 厥第五十二에서 劉浴德은 厥을 脚氣病으로 인식하였고, 足三陽經氣가 衰하면 寒厥이고 足三陰經氣가 衰하면 熱厥이라고 보았다. 또한 治法으로 張子和平의 ‘熱厥者 寒在上 以溫劑補肺金’과 ‘寒厥者 熱在上 以涼劑清心火’를 제시하였다. 通治方으로 雞鳴散을 사용하였다. 또한 寒熱을 구별하여 寒厥에 生料五積散을 사용하였고, 熱厥에 當歸拈痛湯과 三之一湯을 사용하였으며, 外治法으로 椒囊을 사용하였다.

⑥ 皮膚疾患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皮膚疾患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癘風第十一, 不仁第十二, 皴瘃第七十七, 瘰癧第七十八, 丁第七十九, 痔第八十, 癰疽第八十一 등이 있다. 제시된 處方들이 대체로 秘傳方이고, 劉浴德의 經驗이 醫案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³⁰⁾,

23)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20. “治脾藏中風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肢不欲動 不嗜食 白朮 厚朴 姜製 防風 各二錢 附子 炮去皮臍 白蘇皮 五加皮 橘皮 各一錢 右 水二鍾 煎八分 不拘時服”
2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22. “治肺藏中風 多汗惡風 時效短氣 晝差夜甚 五味子 杏仁 去皮尖炒 桂心 各錢 防風 甘草 灸 川芎 赤芍 各二錢 川椒 三分 右 水二鍾 煎八分 食後徐服”
2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23-224. “治腎藏中風 多汗惡風 膨然浮腫 脊痛不能正立 隱曲不利 葶藶 酒浸 狗脊 杜沖 炒去絲 白茯苓 去皮各一兩 首烏 天雄 炮去皮臍 澤瀉 各半兩 右 爲細末 每服二錢 米飲調下 不拘時”
2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8. “生氣通天論曰 汗出偏沮 使人偏枯 靈樞熱病曰 偏枯 身偏不用而痛 言不變 智不亂 病在分腠之間”

27) 吳崑 著. 郭君雙 主編. 吳崑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9-110.
28) 朱丹溪 著. 裘沛然 編. 丹溪手鏡. 中華醫典(繁體版) [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五積丸 黃連(肝腎五錢; 脾七錢; 心肺一兩五錢) 厚朴(肝心脾五錢; 肺腎八錢) 川烏(肝肺一錢; 心腎脾五錢) 乾薑(肝心五分; 肺腎錢半) 茯苓(一錢五分) 人參(脾肺肝二錢; 心五錢) 巴豆霜(五分) 上爲末, 巴豆霜旋入蜜煉爲丸如桐子大, 初二丸, 加至微瀉. 又有虛人不宜攻, 以蠶匿其藥且久留磨積.”
29) 清汪認庵 著.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p.343-345.
3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75. “靈樞子曰 愚家世用之 貼回瘡錠子之上”

특히 疔瘡과 癰疽에서 陶節菴의 醫案을 덧붙여 處方의 藥效를 강조하고 있다³¹⁾. 또한 痔瘡에 있어서 外治 3단계와 內服藥을 제시하여 아주 精密하게 病을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²⁾. 또한 皮膚疾患은 營衛의 不調和 때문에 많이 일어나므로 處方을 溫潤함에 있어 脾胃에 중점을 두었다.

⑦ 婦人科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婦人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살펴보면 石瘕第八十五 主婦人寒客子門, 腸覃第八十六 主婦人寒客腸外, 崩第八十七 主婦人血崩, 九月而瘕第八十八, 種子論이다.

婦人科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子宮疾患(石瘕, 腸覃, 崩), 求嗣, 産科이다.

子宮疾患에 있어서 石瘕와 腸覃의 治法은 馬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處方에 있어서 『衛生寶鑑』을 參考하였다³³⁾.

求嗣에 있어서 孫一奎의 『醫旨緒餘』 下卷 五十二 刪定野山秘抄種子論의 글을 참고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擇地, 養種, 乘時, 投虛의 法이다³⁴⁾. 擇地는 어미의 血을 기르는 것이고, 養種은 아버지의 精을 기르는 것이고, 乘時는 어미의 血과 아버지의 精이 盛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投虛는 새로운 月經이 시작되기 전에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생겨나는 그 때에 性關係를 가져 어미의 血과 아버지의 精이 만나게 하는 것이다.

한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아들과 딸을 추측하는 法이다. 아들과 딸을 추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나이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陰陽으로 一爻를 두어 아래에 놓고, 어미의 나이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陰陽으로 一爻를 두어 위에 놓으며, 음력으로 수태한 달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陰陽으로 一爻를 두어 가운데에 놓는다. 이렇게 계산하여 乾卦(☰), 坎卦(☵), 艮卦(☶), 震卦(☳)가 나오면 아들이고 巽卦(☴), 離卦(☲), 坤卦(☷), 兌卦(☱)가 나오면 딸이다³⁵⁾. 즉 아버지와 어미의 나이차가 0이거나 짝수일 때, 수태한 달이 음력으로 홀수달이면 아들(乾卦(☰), 坎卦(☵))이고 짝수달이면 딸(坤卦(☷), 離卦(☲))이다. 아버지와 어미의 나이차가 홀수일 때, 수태한 달이 음력으로 짝수달이면 아들(艮卦(☶), 震卦(☳))이고 홀수달이면 딸(巽卦(☴), 兌卦(☱))이다.

處方으로 婦人의 두려운 마음으로 性關係를 가지기 힘들 때 氣의 升降을 바로잡아주는 廣嗣丸, 男子의 養種과 婦人의 調經을 하는 固精丸, 婦人의 陰血이 耗損되어 月經不調가 있을 때 調經해주는 增損地黃丸이 제시되었다.

産科에서 出産을 쉽게 하기 위해서 達生散, 無憂散, 催生散을 제시되었으며, 특히 達生散은 朱丹溪의 영향을 받았다³⁶⁾.

⑧ 小兒科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小兒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살펴보면 癩癧第八十二 主小兒癩癧, 癩疾第八十三 主小兒癩癧, 癩第八十四 主急驚慢驚이다.

小兒科에 관련된 내용은 癩癧, 癩癧, 癩癧이며 특히 劉浴德은 癩癧을 驚風으로 인식하여 急驚風과 慢驚風을

31)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74. “神仙太乙膏 陶節菴曰 予嘗用治瘡毒并內癰 有奇效” p.384. “仙方活命飲 陶節菴曰 予嘗用此方 治一切癰疽疔腫”

32)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76-379. 外治 1. 黑痔丹 黑痔云者 上之可以枯黑其痔也 又名引痔丹 謂上之可以引出其痔也 2. 起痔湯 3. 生肌散 生肌 生長肌肉也 (痔墜出洗湯方 暫止痛洗痔墜出搽藥方 暫止痛搽) 內服 通腸痔漏丸藥方 用之如神

33) 靈樞集成刊行研究會. 靈樞研究集成(中). 대구. 청운인쇄. 2006. pp.1214-1215. “●馬: 按 石瘕 由寒氣客於子門而始 元時羅謙夫著『衛生寶鑑』 見見丸等法 腸覃 由寒氣客於腸外而始 元時羅謙夫著『衛生寶鑑』 有疔露丸”

34) 孫一奎 著. 裘沛然 編. 丹溪心法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3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419. “先以父生年 一爻在下 母生年 一爻在上 後以受胎之月 居中 或遇乾坎艮震 陽象也 則生男 或又巽離坤兌 陰象也 則生女”

36) 朱震亨, 戴思恭 著. 裘沛然 編. 丹溪心法.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達生散又名束胎散. 大腹皮(三錢) 人參 陳皮(各半錢) 白朮 芍藥(各一錢) 紫蘇(莖葉, 半錢) 甘草(炙, 二錢) 歸身尾(一錢) 上作一服, 入青蔥五葉, 黃楊腦七個, 此即黃楊樹葉梢兒也. 或加枳殼, 砂仁, 以水煎, 食後服. 于八九個月, 服十數帖, 甚得力. 夏月加黃芩, 冬不必加, 春加川芎. 或有別證, 以意消息于后. 氣虛, 加參, 朮; 氣實, 倍香附, 陳皮; 血虛, 倍當歸, 加地黃; 形實, 倍紫蘇; 性急, 加黃連; 有熱, 加黃芩; 濕痰, 加滑石, 半夏; 食積, 加山楂; 食後易饑, 倍黃楊腦; 有痰, 加半夏; 腹痛, 加木香, 桂.”

나누어 제시하였다³⁷⁾. 急驚風에 宣風散, 金箔鎮心丸이 제시하였고, 慢驚風에 吉州醒脾散과 孔方兄散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急慢驚風의 統制로 天麻散, 保生錠子, 安驚丸을 제시하여 驚風을 자세하게 파악하였다.

⑨ 老人養生

種子論 마지막 부분에 老人養生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處方으로 煮料豆藥方이 제시되었다. 煮料豆藥方은 머리를 까맣게 해주고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어 回春시키는 處方이다³⁸⁾.

⑩ 道家의 영향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道家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脫營第四十五 主心血少와 失精第四十六 主腎精虧 篇이다. 제시된 處方으로 사슴을 이용한 斑龍宴, 全鹿丸, 斑龍峻, 鹿峻丸 등이 있고, 특히 處方の 일부는 道家 醫家人 飛霞道人(韓懋)의 處方이다. 다만 處方들이 寒 혹은 熱에 치우쳐 있기에 이런 弊端을 지적하여 劉浴德 本人이 寒熱에 치우치지 않게 壺隱子雙鹿丸³⁹⁾을 創方하였고 이는 失精을 다스리는 處方の 白眉로 볼 수 있다.

⑪ 方論의 특징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劉浴德은 각 病證에 맞는 處方을 제시하였는데, 總 218方과 4法(塗鼻孔法, 取噴嚏法, 吐法, 汗法)이며 중복된 處方(解毒薑茶湯 3개, 調中益氣湯 2개, 人參敗毒散 2개, 八正散 2개, 清中啓脾湯 2개, 溫膽湯 4개)을 제외하면 總 209方이다.

단일 引用으로 가장 많은 方書와 人物은 『和劑局方』과 李東垣이다. 『和劑局方』에서 總 19方(參苓

白朮散, 胃苓湯, 金沸草散, 人參敗毒散, 參蘇飲, 不換金正氣散, 藿香正氣散, 香蘇飲, 芎蘇散, 十神湯, 生料五積散, 青州白丸子, 清心蓮子飲, 八正散, 升麻葛根湯, 五痺湯, 川芎茶調散, 荊防敗毒散, 金箔鎮心丸)을 引用하였고, 李東垣에서 總 19方(調中益氣湯, 升陽除濕湯, 枳實導滯丸, 清暑益氣湯, 小續命湯, 疎風湯, 肥氣丸, 伏梁丸, 痞氣丸, 息賁丸, 奔豚丸, 清燥湯, 當歸拈痛湯, 連翹飲子, 清震湯, 通氣防風湯, 羌活勝濕湯, 火鬱湯, 升麻散火湯)을 引用하였다.

『和劑局方』은 宋元 間에 매우 널리 流傳되었으며 그 영향도 매우 컸다. 심지어 病變의 虛實寒熱을 不問하고 단지 既成處方으로 치료하는 風潮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에 朱震亨이 전문적으로 『局方發揮』란 책을 지어 날카로운 批評을 하였고, 醫學理論이 발전함에 따라 明代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풍조는 없어졌다⁴⁰⁾. 그러나 그 중의 많은 處方은 實際經驗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證狀에 잘 맞추어 쓰기만 하면 효과가 있었으므로 劉浴德도 效果가 좋은 處方을 病因·病機에 맞추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李東垣은 脾胃와 原氣와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發明을 하여 “內傷脾胃 百病由生”이라는 觀點을 제시하여 주로 益氣升陽하는 藥劑를 사용하고 苦寒瀉火藥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⁴¹⁾. 특히 脾胃는 精氣升降의 樞軸이므로 制防用藥에 있어 脾胃를 중심으로 하는 升降浮沈의 理致를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治法으로 補益脾胃, 升發元氣, 潛降陰火를 중히 여겼다⁴²⁾. 劉浴德도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李東垣의 處方을 많이 인용하였고, 또한 다른 편에서도 脾胃를 중시하는 處方들을 많이 제시한 것을 보면 李東垣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劉浴德은 『和劑局方』의 實用性を 잘 이용하면서 脾胃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方劑를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醫方考』가 出典으로 言及된 篇은 유일하게 腎風第二十四 麥門冬飲이지만 연관된 篇(處方)은 상당히 많다. 살펴보면, 洞泄第一(參苓白朮散, 調中

3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400. “愚按心脈急甚爲癉瘵 當是急驚風 蓋以急驚屬心故也 脾脈急甚爲癉瘵 當是慢驚風 蓋以慢驚屬脾故也”

3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426. “煮料豆藥方 老人服之 能烏鬚黑髮 固齒明目”

3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87. “藥能補陽 鹿能補陰 氣血兩虛 藥兼用 故曰雙鹿 壺隱子曰 愚嘗博極羣書 恨無雙鹿丸 靜焉思之 合九仙丹 可也 且全鹿丸等方 不偏於苦寒 則偏於太熱 惟此方不寒不熱 大都用雄藥四君以補氣 雌鹿四物以補血 枸杞者取其能壯筋骨 堅精髓 延齡益壽 返老還童耳”

40)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153.

41)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314.

42)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323.

益氣湯, 胃苓湯, 痲瘋第二(柴平湯, 三解湯, 枳實導滯丸), 欬嗽第三(金沸草散), 溫病第四(人參敗毒散), 傷寒第五(雙解散), 傷暑第六(十二味香薷飲, 清暑益氣湯, 六一散, 生脈散), 傷風第七(參蘇飲), 寒熱第九(不換金正氣散, 藿香正氣散, 太無神朮散, 芎蘇散, 十神湯), 寒熱第十(小續命湯), 不仁第十二(錫痺湯), 泄風第十三(玉屏風散), 洞第十五(二神丸), 排病第十八(八味順氣散, 大秦芩湯, 三化湯, 黃芪防風湯, 豨薟丸, 中國公萬病無憂藥酒方, 青州白丸子), 腎風第二十四(麥門冬飲), 風水第二十六(越婢湯, 八正散, 五皮飲), 石水第二十七(天金苦瓠丸), 癰第三十九(清心蓮子飲, 八正散), 霍亂第四十一(理中丸, 五苓散, 藿香正氣散, 六和湯), 嘔膈第四十二(溫膈湯), 五疫第四十四(升麻葛根湯, 人參敗毒散, 普濟消毒飲子), 五實第四十七(防風通聖散), 五虛第四十八(破證奪命散), 風痺第五十一(錫痺湯), 厥第五十四(當歸拈痛湯), 厥逆第五十六(四逆湯, 附子理中湯), 頭痛第六十七(清膏膏, 三五七散, 川芎茶調散), 肩背痛第六十八(羌活勝濕湯), 痺第七十一(虎骨酒, 龜鹿二仙膠), 四支熱第七十四(火鬱湯, 升麻散火湯), 體惰第七十五(補中益氣湯, 調中益氣湯), 種子論(達生散)이고 총 31篇이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處方은 57개이다.

『醫方考』는 증후에 따라 72門으로 분류하였고, 每一證마다 病因을 먼저 기술하고 諸家治法을 쓴 후에 名方을 匯集하였다. 또한 이 책의 우수한 점은 方劑의 名名, 藥味造成, 方의 方效, 適應症, 加減應用, 禁忌 등에 대하여 論述한 것으로 條理가 分明하여 참고 가치가 비교적 높다⁴³⁾. 아울러 내용에 있어서 『內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處方의 方解를 설명하였다. 이는 『內經』을 中心으로 하여 立法方藥하는 精神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각 篇에서 劉浴德이 사용한 處方의 意味와 『醫方考』의 方解가 서로 부합되는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점에서 劉浴德이 『醫方考』(吳崑)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劉浴德은 『內經』을 中心으로 하여 立法方藥한 劉河間의 『宣明方論』,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 吳崑의 『醫方考』의 精神을 繼承하여 『增補內經拾遺方論』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集驗方』,

『經驗良方』, 『奇效良方』 등 많은 書籍을 인용하였으므로, 劉浴德의 方論에 대한 理解의 깊이가 상당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增補內經拾遺方論』의 構成

方論이란 處方 중 藥物에 대하여 특히 陰陽·氣化·形色氣味 등의 理論을 運用하여 方理를 說明한 것을 말한다. 체계가 갖추어진 方論 書籍은, 處方의 아래에 主治를 論述하고 後에는 藥物과 加減을 列擧하였으며, 諸家들의 各論을 處方 後에 열거하고 사이사이에 자신의 評論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增補內經拾遺方論』은 총 4卷 2集으로 構成되어 있다. 卷1과 2가 첫 번째 集이고 宋代 駱龍吉이 著述한 『內經拾遺方論』이며, 卷3과 4가 두 번째 集이고 明代 劉浴德이 增補하여 續集으로 엮은 것이다. 편의상 卷1과 2를 『內經拾遺方論』이라 稱하고 卷3과 4를 『增補內經拾遺方論』이라 稱한다.

1) 篇目的 構成

『增補內經拾遺方論』을 살펴보면 『內經拾遺方論』의 方式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凡例에 의하면 『內經拾遺方論』은 62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增補內經拾遺方論』은 88篇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內經拾遺方論』은 본래 內經篇目的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으나⁴⁶⁾ 明代 劉浴德이 『宣明論方』을 參照하여 病症의 순서대로 再編輯하고 病症 옆에 病因을 간략하게 적어놓았고, 또한 『增補內經拾遺方論』도 같은 方式으로 病症의 순서대로 열거하였고 病症 옆에 病因을 간략하게 적어놓았다⁴⁷⁾. 駱龍吉은 『內經』의 原文을 부분적으로 引用하였는데, 劉浴德이 增補할 때 『素問』의 內容은

44)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202.

4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5. “駱氏方論 六十有二 不佞續集方論 八十有八 共一百五十第 而素靈病能無餘蘊矣”

4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5. “駱氏는 專以篇目으로 爲次第”

4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5. “每第下所書主病者 悉遵劉河間先生宣明論 中例也 不佞 專以病證 爲次第”

43)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204.

해당 篇名만을 『靈樞』의 내용은 靈樞라는 두 글자와 함께 해당 篇名을 적어놓았다. 아울러 『難經』에서 나온 것은 難經 두 글자를 제목 위에 표시하고, 먼저 『素問』이고 뒤에 『靈樞』인 경우는 또한 素靈을 그 위에 표시하고, 먼저 『靈樞』이고 뒤에 『素問』인 경우는 또한 靈素를 그 위에 표시하며, 먼저 『靈樞』이고 뒤에 『難經』인 경우는 또한 靈難을 그 위에 표시하고, 만약 『靈樞』와 『甲乙經』에서 나온 경우는 또한 靈甲으로 표시하며, 만약 『靈樞』와 『史記』에서 나온 경우는 또한 靈史로 표시하였다. 『素問補遺』에서 나온 경우는 다만 補遺 두 글자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⁴⁸⁾.

2) 『內經』의 原文을 引用 및 病症에 대한 注釋

『內經』의 原文을 引用할 때 意味에 맞게 고쳤는데, 그 예로 偏枯第七十 主風中分腠의 引用文 중에 ‘靈樞熱病曰 偏枯身偏不用而痛 言不變 智不亂 病在分腠之間’을 들 수 있으며, ‘智不亂’은 원래 ‘志不亂’이다. 또한 『內經』의 原文을 引用할 때 章句를 새롭게 定하였는데, 그 예로 欬逆第七十七 主風寒外來의 引用文 중에 ‘生氣通天論曰 勞汗當風寒 薄爲皴 鬱乃痲’를 들 수 있으며, 원래 章句는 ‘汗當風 寒薄爲皴 鬱乃痲’이다.

『內經』의 句節 뒤에 바로 注釋을 달았는데, ‘夫’자 이후로 나온 文章이 바로 劉浴德의 注釋이다.⁴⁹⁾ 注釋의 內容은 주로 劉浴德의 說明한 內容이며 또한 여러 醫家의 說明을 引用하여 注釋의 內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예로 傷暑第六 主夏月傷暑의 注釋 內容 중에 ‘長沙公曰 脈虛身熱 得之傷暑’를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수많은 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注釋의 內容을 分明하게 하기 위해 醫家의 틀린 注釋을 적어 對照하고 있는데, 그 예로 泣第六十五 主迎風流淚의 注釋 內容 중에 ‘馬玄臺注 爲泣當作澁 不知此則爲泣耳’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病症의 考察을 위해 書籍의 內容을 引用하여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예로 洞第十五 主迴風の 注釋 內容 중에 ‘史記太倉公曰 迴風者 食飲下噎 而輒出不留 病得之酒’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治法에 대한 內容을 引用하여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예로 痿第四十九 主肺熱의 注釋 內容 중에 ‘朱丹溪曰 肺熱則 不管攝一身 脾傷則四肢不能爲用 而諸痿之病作 瀉南方 則肺金清 而東方不實 何脾傷之有 補北方 則心火降 而西方不虛 何肺熱之有’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處方의 出處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處方 옆에 出處를 方書名 혹은 醫家의 이름이나 號를 附記하였는데, 그 예로 洞泄第一 主風傷肝에 제시된 處方으로 蔘苓白朮散 [和劑局方], 調中益氣湯 [李東垣]과 驛第七十一 主胃虛行陰에 제시된 處方으로 異類有情丸 [飛霞道人] (飛霞道人→韓懋)을 들 수 있다. 또한 出處가 分명한 것은 附記하지 않았는데, 그 예로 霍亂第四十一 主氣亂腸胃에 제시된 處方으로 五苓散(五苓散은 傷寒論에 收錄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處方은 出處가 있는 기존의 處方인데 劉浴德 스스로 創方한 處方도 있으며, 그 예로 失精第四十六 主腎精虧에 제시된 處方으로 壺隱子雙鹿丸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기존 醫書에 수록되지 않은 處方들도 있는데, 그 예로 消痺第六十 主五藏柔弱에 제시된 處方으로 清中啓脾湯, 痲痺第七十八 主熱因濕鬱에 제시된 處方으로 解毒薔苓湯, 痔第八十 主持瘻에 제시된 處方으로 通腸痔漏丸을 들 수 있다.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제시된 處方들은 주로 內服藥이며 또한 外用劑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 예로 厥第五十四 主寒主熱에 제시된 外用劑로 椒囊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豫防法도 있는데 그 예로 五疫第四十四 主疫氣傳染에 제시된 塗鼻孔法을 들 수 있다.

4) 方解를 附記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處方 옆에 方解를 記述해 놓고 있는데 內容上 分類해보면 크게 3가지이다.

4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29-130. “出素問者 標素問二字於目上 出靈樞者 標靈樞二字於目上 出難經者 標難經二字於目上 有先素問後靈樞者 又標素靈於其上 有先靈樞後素問者 又標靈素於其上 有先靈樞後難經者 又標靈難於其上 若出靈樞甲乙者 又以靈甲標之 若出靈樞史記者 又以靈史標之 至於素問補遺者 則止標補遺二字 以別之而已”

4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5. “夫字上者 經文也 夫字下者 釋義也”

① 方名の 解釋

洞泄第一 主風傷肝에서 제시된 通玄二八丹을 살펴보면, ‘能行能止 故曰通玄 二 羣藥二兩 八 黃連八兩也’⁵⁰⁾에서 알 수 있듯이 方名の 뜻을 드러내고 있다.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기록된 方解가 劉浴德 本人의 解釋을 적어놓았는지 아니면 다른 書籍의 內容을 參考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文獻을 조사한 결과 『釋方』을 發見하였다. 또한 『釋方』을 참고한 書籍이 있는데 바로 李梴의 『醫學入門』이다. 『醫學入門』에 釋方篇이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처방명의 뜻을 풀이한 것은 정씨(程氏, 程伊)의 책(『釋方』)을 위주로 인용하였다. 한(漢)·위(魏) 때는 실질을 중시하여 구성 약물로 처방명을 지었기에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당(唐)·송(宋) 이후의 처방들은 기이함을 숭상하여 명칭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였다. 진실로 처방명을 지은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방을 쓰겠는가?”⁵¹⁾라고 하였다.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제시된 處方의 方解와 『醫學入門』에 수록된 處方의 方解를 비교해보았고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따라서 劉浴德은 方解에 있어서 程伊의 『釋方』을 參考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處方의 起源 및 異名

風癩第七十三 主足太陽病에서 제시된 舉腳古拜散을 살펴보면, ‘按唐韻 荊字舉脚切 芥字古拜切 蓋二字之反切 隱語以秘其方也 壺隱子曰 以膚見論之 又名荊芥散 許學士謂有神聖功 姚僧坦 命爲如聖散 辛元化名爲愈風散 一名息風散 戴院使 目爲獨行散 蕭存敬方用古老錢煎湯服 呼爲一捻金 賈丞相治男子 稱爲再生丹’⁵²⁾에서 알 수 있듯이 舉腳古拜散의 起原 및 異名을 說明하고 있다.

③ 方解의 說明

痲瘡第二 主暑傷心에서 제시된 三解湯을 살펴보면,

‘壺隱子曰 夏傷於暑 秋必痲瘡 故用澤瀉 瀉心經之熱 自小腸中出也 寒熱不清 故用柴胡以清之 無汗要有汗 故用麻黃以發之 三解云者 謂三藥能通解之也’⁵³⁾에서 알 수 있듯이 각 藥材의 效能과 主治를 說明하여 處方의 方解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모든 처방에 있어서 方解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특히 君臣佐使로 나누어 說明하지 못하였기에 그 限界는 있다.

5) 醫案을 附記

丁第七十九 主身生丁瘡에서 제시된 處方으로 神仙太乙膏를 살펴보면, ‘陶節菴曰 予嘗用治瘡毒并內癰 有奇效 忽一婦月經不行 腹結塊作痛 貼之經行痛止 後隨用法治證 無有不效 愈知此方之妙也 嘗以此膏 施貼楊梅毒潰爛者 甚效 有一人爛頭半邊 貼之亦愈 其一切瘡瘍癰瘰赤眼 並婦人經閉 俱試有驗 壺隱子曰 愚家世用之 貼回瘡錠子之上’⁵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세한 醫案이 기록되어 있다.

6) 製法 및 用法과 用量을 說明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제시된 處方 중 대부분은 製法 및 用法과 用量이 記述되어 있다. 그 예로 脫營第四十五 主心血少에서 제시된 處方으로 斑龍宴을 살펴보면, ‘夜前減食 次曉 將鹿後二足 用布索懸起前二足 令有力者抱定 有角執角 無角用木囊頭拘之 握其兩耳 使頭不掉側 先用三稜鍊鍼 刺開天池穴 次用銀筒如筋 一頭斜銳入穴 主者坐定 嘔其血十數口 飲藥酒數盃 復嘔復飲 以醉爲度 鼻中流出者 亦可 和酒飲畢 卽避風 行升降工夫 坐臥至醒 是爲一宴也 用生肌藥 傅鹿穴 又養 夫宴漸隨人意 一年可宴十二度 一鹿可用五七年 不拘男女老壯 能用之 終身無疾而壽矣’⁵⁵⁾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5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45.

51) 明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7. “以程氏爲主 漢魏尙實 以藥品名方 不必釋也 唐宋后 方尙奇而名好異 苟不知立名之義 將何以用其方耶”

52)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54.

53)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0.

5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74-375.

5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79-280.

3. 病症과 處方의 理解

『增補內經拾遺方論』 88篇에 수록된 內經의 古代 病症과 그에 연결된 處方 중 몇몇 病症을 대표적으로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1) 洞泄과 洞

劉浴德은 木克土로 因하여 洞泄이 일어나고 오래 되면 脾胃虛弱(寒泄)까지 된다고 제시하였고, 注釋에서 飧泄과 약간 다르다고 하였다⁵⁶⁾. 그러나 處方의 運用에 있어서 飧泄에 사용하는 調中益氣湯⁵⁷⁾과 濡瀉에 사용하는 升陽除濕湯을 볼 때⁵⁸⁾, 劉浴德은 실제로 洞泄을 飧泄·濡瀉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泄瀉라는 증상으로 볼 때 胃風·腸痺·鶩瀉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內經拾遺方論』에서 駱龍吉은 飧泄을 下熱로 因한 熱泄⁵⁹⁾로, 濡瀉를 脾濕으로 因한 水瀉⁶⁰⁾로, 胃風을 胃氣가 寒으로 傷하여 寒이 鬱滯된 寒泄⁶¹⁾로, 腸痺는 風寒濕의 邪氣가 小腸에 침입한 水瀉⁶²⁾로, 鶩瀉은 寒濕으로 因한 腸寒으로 생긴 寒泄⁶³⁾로 보았다.

즉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下熱로 因한 熱泄인 飧泄(‘清氣在下則生飧泄’)과 脾濕으로 因한 水瀉인 濡瀉(‘濕勝則濡瀉’)는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風傷肝의

木克土로 일어나는 洞泄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水瀉인 腸痺, 寒泄인 胃風·鶩瀉까지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靈樞邪氣藏府病形』에 나오는 洞은 洞泄이 아니며, 劉浴德은 洞을 迴風으로 보았고, 그 근거로 『史記·太倉公』에서 “‘迴風’은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다가 곧 다시 (大便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나와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술을 먹어서 病을 얻는다.”와 “‘迴風’의 증상은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다가 곧 뒷간에 가는 것이니 배불리 먹고 나서 빨리 달려서 병을 얻는다.”의 구절을 인용하여 洞이 迴風과 같음을 제시하였다.⁶⁴⁾ 또한 馬玄臺(馬蒔)가 제시한 ‘洞은 洞泄이다.’⁶⁵⁾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洞泄과 迴風(洞)은 모두 泄瀉가 공통점이나 洞泄은 木剋土의 病機로 일어나고 迴風은 腎虛의 病機로 일어난다. 따라서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腎脈微緩의 洞은 迴風이고 大便이 견고하게 나오지 않는 것(飧泄)이 주증상이며 그 원인은 바로 腎氣(陽)虛이며 治法으로 補腎氣(陽)하는 藥인 安神丸과 二神丸을 사용하였다.

2) 溫病과 傷寒

劉浴德은 溫病을 臟病 즉 腎病으로 보았고, 腎病으로 因하여 藏精하지 못하면 正氣가 약해지며 時行病과 달리 津液消耗가甚하여 咽喉가 乾燥하고 渴症이 일어나기에⁶⁶⁾ 여기서 正傷寒의 正發汗이 아닌 發散과 補法을 같이 행하는 治法이 나오게 된다.

대개 張仲景, 王冰, 成無己가 말한 傷寒은 時行病(時行感冒)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劉浴德은 脈氣의 盛함과 寒熱의 관계는 꼭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素問·刺志論』에 언급된 傷寒⁶⁷⁾은 傷暑와

5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39-140. “生氣通天論 曰 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夫風 屬木主風 風氣通於肝 肝受風傷 邪氣留連 於內 則木來剋土 故 大泄若洞之出也 靈樞邪氣藏府病形 曰 腎脈小甚 爲洞泄 此是水泄 與飧泄 微有不同也 陰陽應象大論 曰 春傷於風 夏生飧泄 靈樞論疾診尺亦云 夫朝曰飧 夕曰飧 夕食不化 而米穀元出”
57)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29.
58)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73.
59)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29.
60)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74.
61)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28.
62)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41.
63)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76.

6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92-193.
6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3.
6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8. “生氣通天論 曰 冬傷於寒 春必溫病 陰陽應象大論 亦云 靈樞論疾診尺 曰 冬傷於寒 春生瘧熱 夫寒者 冬令也 冬傷之不即發 至春溫暖 復感於寒 變爲溫病 必矣 熱論 曰 先夏至日 爲病溫 是也 壯熱咽乾 無咽乾者 時行病耳”
6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대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寒邪와 暑邪의 구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素問·刺志論』에서 언급된 傷寒은 溫熱病의 범주이고 『素問·熱論』에서 언급한 傷寒(時行病)과는 다르며 傷寒은 溫病이 變하여 여름에 다시 寒邪를 감축하여 발생하는 熱病으로 時行病(時行感冒)과 달리 熱이甚하고 咽喉乾燥의 증상까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正傷寒의 發汗法을 사용할 수 없고 熱로 인한 津液耗와 氣를 보충하면서 發散해야 한다.

3) 寒熱往來

劉浴德은 露(陰邪)와 風(陽邪)으로 寒熱往來(68)가 일어난다고 보았고,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다스렸다. 하나는 山嵐瘴氣로 일어나는 寒熱往來이고 이는 濕邪(露)로 볼 수 있으며 不換金正氣散, 藿香正氣散, 太無神朮散이 해당된다. 하나는 때가 아닌 時行感冒로 일어나는 寒熱往來이고 이는 風(熱)邪로 볼 수 있으며 香蘇飲, 芎蘇散이 해당된다. 하나는 時行感冒로 일어나는 寒熱往來이고 風(寒)邪로 볼 수 있으며 十神湯, 生料五積散이 해당된다. 아울러 夏의 感冒를 다스리는 諸葛解甲風도 있다. 劉浴德은 露風으로 인한 寒熱往來의 큰 綱領만을 제시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濕, 風熱, 風寒으로 들어가면 嘔吐, 泄瀉(霍亂, 痢疾), 頭痛, 身痛까지 그 증상을 확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4) 不仁과 肉苛

劉浴德은 風邪가 肌肉에 침입하여 風氣와 衛氣가 서로 부딪히면 肌肉의 痲痺와 腫瘡으로 衛氣의 循行이 凝滯되어 不仁이 일어난다고(69) 보았다. 不仁의 증상이

2000. p.160. “刺志論曰 氣盛身寒 得之傷寒 夫氣盛者 脈氣盛也 身寒者 人身感於天地之風寒也 夏月得之 是爲傷寒 不然 何以 長沙公曰 脈盛身寒 得之傷寒 王太僕 成聊攝 成主人身之寒熱而言 以之論傷暑則當 以之論傷寒則非也 吾恐脈盛者 身必不寒 身寒者 脈必不盛 傷寒傷暑 對學而 互言之者 分別夏月寒暑 無疑矣 熱論曰 後夏至日者 爲病暑 是也 壯熱咽乾 無咽乾者 時行病耳”

6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70. “生氣通天論曰 因於露風 乃生寒熱 脈要精微論曰 風成爲寒熱 夫露 陰邪也 風 陽邪也 因於露 因於風 皆能令人寒熱往來 豈特風成爲寒熱而已哉 太僕 謂露體觸 冒風邪 則非矣 況上文 有無見霧露 可證”

6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7-188. “風論曰 風氣與太陽 俱入 行諸脈俞

일어나는 질환 중에 肉苛가 있는데, 『內經拾遺方論』에 쓰여 있다(70). 駱龍吉은 肉苛를 不仁證으로 인식하였고, 그 원인을 營血이 虛하고 皮膚에 邪氣가 있어 不仁하므로 營虛衛實로 파악한 듯하다(71). 또한 歷代註家들도 營이 虛하여 온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72). 따라서 不仁은 衛氣循行의 凝滯(衛虛風濕熱)와 衛實(風熱)營虛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風痺, 肉痺, 寒痺, 蹠跛도 不仁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5) 腎風, 風水와 膚脹

『素問奇病論』의 腎風(73)은 風熱과 風水가 안에 쌓여 脈이 大하고 緊하며 얼굴과 눈이 붓지만 痛症이 없고 형태도 마르지 않는 病이고, 『素問評熱病論』의 風水(74)는 腎風에 걸린 자가 腎氣가 虛하여 얼굴과 다리가 붓고 말을 잘하지 못하며, 時熱, 口乾, 善渴과 남자의 小便

散於分肉之間 與衛氣 相干 其道不利 故 使肌肉 憤脹而有癢 衛氣有所凝而不行 故 其肉有不仁也 夫風傷於衛 則衛氣凝滯不行 故 肌肉不仁 寒不知也 熱不知也 痛不知也 痒不知也 揆厥所自 蓋由風邪先入太陽膀胱 復行諸背俞 散於分肉之間 風氣欲入 衛氣欲出 則彼此相干犯 而衛氣所行之道路 不得通利 故 使肌肉之上 憤脹腫起而有瘡瘍者 職此之故耳”

70)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81.

71)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82.

72)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集成(卷4).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99. “○馬: 榮氣者 陰氣也 運於內 爲陽之守 故 其氣虛 衛氣者 陽氣也 運於外 爲陰之使 故 其氣實 太陰陽明論曰 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 陽道 實 陰道 虛 此 卽本節虛實二句之義 ○吳: 營 陰血也 衛 陽氣也 陰主內 如軍中之營 故 曰營 陽主外 如軍之外衛 故 曰衛 乃陰陽表裏氣血之辨也 營 亦作榮 謂陰血 有餘 令人 顏色 華采 如草木之榮也 故 二字 通用 義則各有攸當耳 ○景岳: 營氣者 陰氣也 主裏 衛氣者 陽氣也 主表 上言衛氣實者 言 肌肉 本無恙也”

73)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24-225. “奇病論曰 有病瘵然如有水狀 切其脈大緊 身無痛者 形不瘦 不能食 食少 病生在腎 名爲腎風 夫人有病瘵然 面目浮腫 如有水狀 切其脈大緊 風熱內蘊則 脈大 風水相搏則脈緊 身無疼痛 形不羸瘦 土衰不能制水 故 不能食 縱雖食 而亦食少 此病之生也 專在於腎 名爲腎風 非以其腎主水而風乘於上乎”

7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25-226. “評熱病論曰 有病腎風者 面附瘵然 壅塞於言 夫面 頭面也 附 足附也 瘵然 腫起貌 且壅塞而有 害於言 其人 腎氣虛 故 時熱 口乾 善渴 在男子則小便多黃 在女子則月事不來 面腫曰風 足脛腫曰水 所以名曰風水也”

多黃 및 여자의 月經不調의 증상이 있다. 『素問·平人氣象論』의 風水⁷⁵⁾는 위로 風에 傷하고 아래로 濕에 傷하여 얼굴이 붓는 風病과 다리가 붓는 水病이다. 『素問·奇病論』의 腎風과 『素問·評熱病論』의 風水는 얼굴이 붓고 검은 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素問·平人氣象論』의 風水는 寒熱에 따라 얼굴빛이 다르게 나타나며 寒의 경우 얼굴빛이 창백하고 熱의 경우 누렇다. 이점에서 『素問·奇病論』의 腎風과 『素問·評熱病論』의 風水는 浮腫(水濕)의 의미가 아니며 『素問·平人氣象論』의 風水는 浮腫(水濕)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風水의 治療大法은 浮腫이 水濕의 질환이므로 利小便해야 하는 것이고, 寒熱, 上下(表裏), 虛浮腫을 구분하여 다스려야 한다.

한편 膚脹은 寒邪가 皮膚에 침입하여 皮膚가 붓고, 風水는 風邪가 玄府에 침입하여 正氣가 붓는다. 둘의 차이점은 손으로 눌렀을 때 손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風水이며 이와 달리 膚脹은 손으로 눌렀을 때 손을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⁷⁶⁾.

6) 癰과 三焦約

劉浴德은 膀胱의 邪氣가 實하여 小便이 막히는 癰이 일어난다고⁷⁷⁾ 보았고, 膀胱의 邪氣實만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癰을 虛實(急性)로 구분하여 치료하였으며, 八正散과 倒換散은 實(急性)에 사용하였고 滋陰化湯과 清心蓮子湯은 虛(慢性)에 사용하였다. 倒換散은 다른 이름으로 荊黃湯이라 하고 『內經拾遺方論』에서 三焦約⁷⁸⁾의 處方으로 제시되어 있다. 駱龍吉은 三焦約의 원인을 邪熱로 인해 三焦의 氣가

막힌 것으로 보고 그 증상으로 大小便閉를 들었다.⁷⁹⁾ 이점에서 三焦約은 急性(實) 癰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第二十六篇 風水에 제시된 八正散이 癰에도 제시되었고, 이는 急性(實) 癰으로 小便不通하면 水濕이 몸에 쌓여 浮腫 즉 風水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隔(噎, 轉食氣: 三陽結)과 一陽病

劉浴德은 三陽(胃·大腸·小腸·膀胱)에 熱이 맺혀 (三陽結) 血乾이 되면 大小便을 보지 못하는 隔病(轉食氣)이 일어난다고⁸⁰⁾ 보았으며, 隔病(轉食氣)은 곧 噎隔이고 그 근거로 朱丹溪가 말한 ‘噎病은 血이 乾燥해서 일어나고 胃脘이 乾燥하고 마른 것’을 제시하였다. 결국 大便不通의 病因·病機를 小腸膀胱結에 胃大腸結까지 확장하여 血燥(津液涸)로 인한 熱秘로 본 것이다. 『內經拾遺方論』에서 一陽病⁸¹⁾을 살펴보면, “一陽이 發病할 때에 조금 氣逆이 있으면 기침을 잘하고 기운이 잘 새나가다가 그것이 傳하면 心이 당겨지고 그것이 傳하면 膈(塞)이 된다.”⁸²⁾고 하였고, 駱龍吉은 一陽病의 病因·病機를 三焦의 相火가 肺와 大腸을 痙攣하고 더 심해지면 心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⁸³⁾.

따라서 一陽病은 三陽結의 前段階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끝은 隔(噎)이 일어난다. 隔病의 處方은 滋陰潤燥湯이며 方解를 살펴보면, 四物湯으로 陰血을 길러 血燥를 潤澤하게 하고 桃仁和 紅花는 血燥로 생긴 瘀血을 제거하고 陳皮와 甘草는 脾胃를 和平하게 하여 氣逆을 다스린다.

7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27-228. “平人氣象論曰 面腫曰風 足脛腫曰水 夫高顛之上 惟風可到 雖由於水 實風乘之 水性流下 故傷於濕者 下先受之 腰以上腫者 宜發汗 腰以下腫者 宜利小便 故曰 治濕 不利小便 非其治也”

7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36-237.

7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45. “宣明五氣篇曰 膀胱不利爲癰 夫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今膀胱氣實 故不利而爲癰 癰者 罷也 其閉而不通之謂歟 脉經 腎乘心則癰”

78)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77.

79)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78.

8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65-266. “陰陽別論曰 三陽結 謂之隔 夫三陽胃大腸小腸膀胱也 結 謂熱結也 大腸結則後不能通 小腸結則血脉燥 膀胱結則津液涸 隔 謂隔塞而不通也 卽噎隔 俗呼爲轉食氣”

81)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46.

82)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46.

83)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51.

8) 瘟疫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瘟疫의 豫防法으로 塗鼻孔法, 取噴嚏法, 吐法, 汗法, 小金丹, 屠蘇酒, 青蒿點湯을 제시하였고, 治療法으로 人參敗毒散, 升麻葛根湯, 普濟消毒飲子를 제시하였다. 특히 劉浴德은 疫氣가 코를 통해 들어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塗鼻孔法⁸⁴⁾과 取噴嚏法⁸⁵⁾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疫病이 大人과 小兒를 막론하고 傳染性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豫防을 강조하였고 吐法, 汗法, 小金丹, 屠蘇酒, 青蒿點湯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豫防에 있어서 人體의 正氣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小金丹⁸⁶⁾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吐法⁸⁷⁾, 汗法⁸⁸⁾, 屠蘇酒⁸⁹⁾, 青蒿點湯⁹⁰⁾에서 疫氣를 豫防하는 방법이 呪術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만큼 疫病은 古人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또한 治療法을 제시하였는데 疫病을 傷寒의 범주로 보지 않아 正發汗의 治法이 아닌 補瀉를 兼施하는 治法을 行하였고 이는 溫病에서 이미

인급되어 있다. 특히 普濟消毒飲子⁹¹⁾의 경우 玄參, 牛蒡子, 連翹, 黃連, 黃芩과 같은 熱毒을 치는 藥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劉浴德은 疫病의 주요 원인이 熱毒임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劉浴德은 疫病을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治療法은 분명 限界가 있다.

9) 目不瞑(不眠)

目不瞑(不眠)⁹²⁾의 處方으로 半夏湯을 제시하였다. 『本經疏證』에서 半夏는 “味辛氣平 體滑性燥 故其爲用 辛取其開結 平取其止逆 滑取其入陰 燥取其助陽”이라 하였다⁹³⁾. 즉 맛은 맵지만 氣가 平하여 단단하게 응결된 것을 풀며 동시에 위로 上逆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體가 滑하지만 性은 燥하여 體滑로 內臟속에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陽의 氣化作用을 돕는다. 또한 『傷寒論』에서 “傷寒三日 三陽爲盡 三陰當受邪 其人反能食而不嘔 此爲三陰不受邪也”⁹⁴⁾를 살펴보면 邪氣가 三陰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밥을 먹고 嘔逆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不眠은 衛氣(陽氣)가 外身에서만 운행되고 內臟(陰)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생기고 半夏는 邪氣가 三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온전히 陽氣(衛氣)가 陰(內臟)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여 陰陽을 內外로 서로 소통시키니 不眠을 치료한다.

- 8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67-268. “塗鼻孔法 戴復庵曰 入病人家 不令染着 雄黃 不拘多少 右 研細末 塗鼻孔 須知避忌 行從客位 邊入 夫男子病 穢氣出於口 女子病 穢氣出於陰 坐立對語之間 自宜識得向背”
- 8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68. “取噴嚏法 入疫家診病 出其戶庭 用紙撚 連打噴嚏五七個 卽不染易 何也 蓋從鼻而入者 亦從鼻而出也”
- 8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69-270. “小金丹 辰砂 二兩 雄黃 一兩 雌黃 一兩 紫金 半兩 右 同入合中 外固 下地一尺 築地實 不用爐 不須築制 用火二十斤 煨之也 七日 終候冷 七日 取出 埋藥地中 七日 取出 順日 研之 三日 煉白沙蜜 爲丸 桐子大 每日 望東 吸日華氣一口 冰水下一丸 和氣嚥之 服十粒 無疫干也”
- 8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68-269. “吐法 於春分之日 日未出而吐之 遠志 去心 右 水煎 飲二盞 吐之 不疫”
- 88)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69. “汗法 於雨水日後 三浴以藥 泄汗”
- 89)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70. “屠蘇酒 李瀕湖曰 蘇 魁 鬼名 比藥屠割鬼爽 故名 或云草庵名也 酒能辟惡 故 用之 元旦飲此 辟疫厲一切 不正之氣 此華陀方也”
- 90)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71. “青蒿點湯 山東有一人家 共費五百餘口 二百餘年不染瘟疫瘴氣 其家 每歲以三伏日 侵晨 採取苦蒿頭 一束 陰乾 冬至日 搗羅爲細末 至除夜 用蜜水調和 從少至老 每人服一匕 終身不染一切毒病 此亦古人屠蘇之法”

- 91)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73-274. “普濟消毒飲子 普濟 博濟也 大頭瘟 乃熱毒所致 故 用藥 以消之也 治大頭傷寒 俗呼爲蝦蟆瘟 市井號爲浪子 黃芩 黃連 五錢 人參 三錢 玄參 橋紅 甘草 二錢 板藍根 馬勃 牛蒡子 連翹 一錢 升麻 白僵蠶 七分 炒 柴胡 桔梗 三分 右 爲細末 或加防風 薄荷 川芎 歸身 每服 五錢 水二鍾 煎八分 熱服 或半用湯調 細細呷下 半用蜜丸 時時嚥化 大便閉 加酒煨大黃一二錢”
- 92)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28. “靈樞邪客 曰 夫邪氣之客人也 或令人目不瞑 不臥出者 甲乙經曰 衛氣 行於陽 陽氣滿 不得入於陰 陰氣虛 故 目不瞑 夫瞑 閉目也 晝起夜臥 此其常也 今夜不得瞑目者 由衛氣獨行於陽 不得入於陰也 獨行於陽 故 陽盛 不入於陰 故 陰虛 此所以不交睫也 不然 何以靈樞口問曰 陽氣盡 陰氣盛 則目瞑”
- 93) 趨澗 지음.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下). 경기. 대성의학사. 2001. p.406.
- 94) 張仲景 著. 裘沛然 編. 傷寒論. 中華醫典(繁體版) [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10) 目不明과 泣(迎風流淚)

劉浴德은 ‘風盛寒中證’을 風氣가 外泄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증상은 추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체가 마른 경우에 腠理가 열리고 성글어져 風氣의 침입이 쉽고 寒中하기 때문이며, 아마도 人體의 瘦瘠함은 脾胃가 弱하기 때문일 것이고 母인 脾土가 弱하면 子인 肺金이 또한 弱해져 腠理가 열리고 성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⁹⁵⁾. 또한 『素問·五臟生成篇』에서 “人臥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하여 肝이 血을 받아야 눈으로 볼 수 있고 血은 氣와 함께 움직이므로 氣가 부족하면 시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目不明⁹⁶⁾과 風盛寒中證(泣出)은 비슷한 질환이며 風寒邪와 肝脾肺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 迎風流淚도 역시 風寒邪와 肝脾肺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데 다만 風寒이 아니라 風熱이다.

11) 頭痛과 腦風, 厥逆頭痛

『內經拾遺方論』에 腦風⁹⁷⁾과 厥逆頭痛⁹⁸⁾이 있는데, 駱龍吉은 腦風에 나타나는 頭痛을 寒證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았고, 寒證의 증거로 추위를 심하게 타는 것을 제시하였다⁹⁹⁾. 또한 駱龍吉은 厥逆頭痛的 원인을 大寒이 腦髓에 侵入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⁰⁾. 따라서 腦風과 厥逆頭痛은 寒邪가 주요 원인이다. 『增補內經拾遺方論』에서 頭痛의 病因을 痰, 血虛, 風, 風熱, 濕熱, 寒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腦風과 厥逆頭痛은 頭痛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12) 脚氣, 足脛痛과 蹠跛

厥病(脚氣)과 足脛痛은 蹠跛¹⁰¹⁾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모두 濕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足部에 病이 있으며 厥病(脚氣)와 足脛痛은 주로 痛症이 동반되는 반면에 蹠跛는 痛症보다는 感覺異常과 筋無力이다. 즉 厥病(脚氣)은 주로 腫痛으로 표현되고 足脛痛은 주로 痛症으로 표현되고 蹠跛는 不仁和 筋無力으로 표현된다. 또한 大僂¹⁰²⁾와 蹠¹⁰³⁾도 蹠跛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모두 筋無力이 공통적으로 있다. 다만 大僂는 등허리에 病이 들어 몸이 구부러지고 蹠는 四肢와 筋骨에 病이 들어 머리와 몸이 아래로 처지고 蹠跛는 足脛에 病이 들어 不仁和 步行이 힘든 것이며 大僂와 蹠가 蹠跛보다 더 심한 筋無力病이다. 蹠跛는 風寒濕의 邪氣로 不仁和 筋無力이 동반되므로 燥濕 健脾하고 營衛調和하여 肌肉을 풀고 아울러 瘀血을 제거해야 한다.

13) 跛痺와 痺癢

劉浴德은 房勞로 腎을 흘린 후에 風寒邪에 직중되어 기름진 津液이 玄府에 凝結되는데 열다면 跛가 일어나고 오래 鬱滯되면 痺가 일어난다고 보았고, 跛와 痺를 粉刺 혹은 肺風瘡이라고 제시하였다.¹⁰⁴⁾ 한편 여름철 腎이 날 때 濕邪를 만나 陽氣가 새어

95)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16.

9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27. “靈樞決氣曰 氣脫者 目不明 夫氣 陽也 陽盛則氣盛 氣盛則目明 若苟陽氣虛脫 故 目視物 所以不明焉”

97)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19.

98)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66.

99)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19.

100)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167.

101)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52. “夫蹠 亦作跖 蹠跛 皆謂步履不正也 楚人謂跳曰蹠 易曰 跛能履 蹠 謂兩足皆攀也 跛 謂一足偏廢也 暫蹠暫跛 其寒風濕之所致乎 寒傷于榮則不仁 風傷于衛則不用 傷于濕者 下先受之 故 人筋絏短 此其候也”

102)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43-344. “生氣通天論曰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開闔不得 寒氣從之 乃生大僂 夫肝主筋而藏血 血爲陰 氣爲陽 陽氣者 精則養人之神 柔則養人之筋 惟神筋得其所養 則機關便利 何僂之有 苟開闔不得其宜 則腠理不密 寒氣 客於脊膂之中 神也筋也 皆失其所養 寒則筋急 吾見形容爲之大僂俯矣”

103)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46-347. “靈樞口問曰 人之蹠者 何氣使然 胃不實則諸脈虛 諸脈虛則筋脈懈惰 筋脈懈惰 則行陰用力 氣不能復 故 爲蹠 夫胃者 五臟六腑之海也 胃中充實 則諸脈不至於空虛 諸脈不至於空虛 則筋脈不至於懈惰 筋脈不至於懈惰 縱行陰用力 氣亦能復 何蹠之有 今也不然 安得而不爲蹠哉 蹠 下垂貌 首身 下垂而不能舉也”

104)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62-363. “夫人於房勞汗出之時 腠理開疎 或當風寒 則風寒外束 遂使脂液凝結於玄府 淺薄而小者爲跛 久鬱而大者爲痺 俗呼爲粉刺 又謂之肺風瘡”

나가고 차가운 水가 억제하니 熱이 피부 속에서 鬱滯되고 맺혀 甚하면 痲痺이 일어나고 微弱하면 痲瘡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鼓座에서 王의 注釋 중 ‘時月寒涼’¹⁰⁵⁾이라는 구절과 痲瘡에서 劉浴德의 注釋 중 ‘夏月汗出’¹⁰⁶⁾이라는 구절을 볼 때, 鼓座는 주로 가을이나 겨울철에 일어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4) 石瘦와 腸覃

石瘦와 腸覃은 寒氣의 侵入으로 積聚가 생기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月經의 有無로 石瘦는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반면에 腸覃은 月經이 제때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石瘦의 경우 寒氣가 胞門에 깊숙이 침입하여 瘀血이 형성된 것이기에 血分의 病이며 腸覃은 腸外에 침입하여 胞門까지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에 氣分의 病이다¹⁰⁷⁾.

III. 結 論

『增補內經拾遺方論』 중 劉浴德이 著述한 卷3과 卷4의 내용을 바탕으로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劉浴德은 號는 肖齊이고 別號는 壺隱子이며 淮陰(지금의 江蘇省 淮陰)人이다. 대대로 醫師 집안이고 太醫院에서 太醫로 지냈으며 明 神宗 萬曆間(16世紀 중반부터 17世紀 초반)에 살았다. 著書로는 『增補內經拾遺方論』, 『壺隱子應手錄』, 『壺隱子醫譚一得』, 『脈訣正偽』, 『脈賦訓解』 등이 있고

現在 『增補內經拾遺方論』만이 傳해지고 있다.

2. 劉浴德은 『內經』의 研究에 있어서 『素問』은 王水, 吳崑, 馬蒔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靈樞』는 馬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단지 영향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틀린 내용에 대해 指摘을 하였으며, 또한 劉浴德과 同時代에 활동한 內經 研究家인 景岳과 比較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見解가 같다.
3. 劉浴德은 醫學思想에 있어서 金元四大家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李東垣과 朱丹溪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和劑局方』의 實用性을 잘 이용하면서 脾胃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陰血 및 火熱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4. 劉浴德은 方論에 있어서 『醫方考』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고, 『內經』을 中心으로 하여 立法 方藥한 『宣明方論』, 『內經拾遺方論』, 『醫方考』의 精神을 繼承하였다.
5. 劉浴德은 積聚를 痞證의 範疇에서 바라보고 養正 則自除와 治血分의 觀點에서 다스렸다. 또한 厥을 脚氣로 認識하였고, 泣을 迎風流淚로 把握하였다.
6. 『增補內經拾遺方論』은 『內經』의 病症에 대한 病因·病機가 仔細하게 分析되어 그에 적합한 處方이 연결되었고, 특히 『釋方』을 參考하여 解說한 方論書籍이며, 아울러 處方名의 理由와 由來, 醫案, 主治 및 用法 등이 收錄되어 있으므로, 方論을 研究하는데 그 價値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IV. 參考文獻

<논문>

1. 류호근. 汪昂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2.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處方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3.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 陰血 處方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05)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研究集成(卷1).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01.

106)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365.

107)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408-409. “夫石 堅韌如石也 瘦 假物成形也 唯女子有之 寒氣客於子門 氣塞不通 血壅不流 狀若懷子 此氣先病而血後病 故 月事不以時下” pp.411-412. “夫腸者 大腸也 覃者 延也 唯女子有之 乃寒氣客於大腸 之外 惡氣乃得起發 瘕肉乃得生長 狀若懷子 此氣病而血 不病 故 月事以時下”

2007. 20(3).
4.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補氣血安神 處方 8首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5. 李南九,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處方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6. 殷哲珉. 『經方實驗錄』의 方論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4). pp.1-12.
 7. 安宰永.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p.29, 46, 51, 81, 82, 116, 119, 128, 141, 166, 167, 173, 174, 176, 177, 178, 202, 204.
 6. 吳崑 著. 郭君雙 主編. 吳崑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9-110.
 7. 明·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7.
 8. 清·汪認庵 著.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p.343-345.
 9. 趙澍 지음.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下). 경기. 대성의학사. 2001. p.406.
 10.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研究集成(卷1). 대구.金星印刷社. 2001. p.101.
 11.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研究集成(卷4). 대구.金星印刷社. 2001. p.99.
 12. 靈樞集成刊行研究會. 靈樞研究集成(中). 대구. 청운인쇄. 2006. pp.1214-1215.

<단행본>

1. 宋·駱龍吉 撰, 金劉完素 撰, 清羅美 編, 郝恩恩 主編. 三朝名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2. 清·汪昂 著, 蔡仁植, 孟華燮 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2.
3.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153, 234.
4.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314, 323.
5.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1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0, pp.109-110, 124, 125, 127, pp.128-129, pp.129-130, 139, pp.139-140, 145, 150, 158, 160, 170, 177, pp.177-178, 178, 183, pp.187-188, pp.192-193, 193, 198, 216, pp.216-224, 217, 218, pp.218-219, 220, 222, pp.223-224, pp.224-225, pp.225-226, pp.227-228, 234, pp.236-237, 245, 249, 252, 259, pp.265-266, pp.267-268, 268, pp.268-269, 269, pp.269-270, 270, 271, pp.273-274, pp.279-280, 284, 287, 295, 297, 316, 327, 328, 330, pp.343-344, pp.346-347, 354, pp.362-363, 365, 374, pp.374-375, 375, pp.376-379, 384, 400, pp.408-409, pp.411-412, 419, 426.

<기타>

1. 裘沛然 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傷寒論, 丹溪手鏡, 丹溪心法, 醫旨緒餘.